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

홍보전략개발세미나 개최

지난 6월 19일 健協 대강당에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 세미나가 지난 6월 19일 健協 강당에서 보건 관계 각계각층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관리 할 수 있는 보건교육사업의 장기적 접근 방법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사회조직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할을 개발하는 한편 대 국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교육 활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전략개발”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장기보건교육정책 구상, 사회보건단체의 홍보활동, 보건교육의 필요성, 보건관계법 규 개발, 보건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기관의 기능 진단 및 홍보기능 활성화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유원하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장기교육정책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산하기관에 보건교육 자료 제작 센터를 설치하여 각 보건 사업 내용과 지역사회의 업무내용에 따른 보건교육 홍보자료를 개발해 정부가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각종 보건통계, 연구보고서, 교재, 정도등을 수집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보건정보은행을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건교육 사업계획, 예산편성, 사업감독 등 지역 사회의 보건에 관계된 각종자료를 일정한 통로를 통해 수집정리 할 수 있도록 보건정보 체제를 강화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보사부 관계관외에 문교부, 시도 방역 및 보건담당계장, 시도 교육 위원회 사회·체육 담당자, 대한적십자사, 보건교육학회 회원, 보건단체 홍보책임자, 인구보건 연구원, 양호교사등 각계각층에서 15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세미나에서의 발표 주제 및 발표자

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장기 보건교육정책 구상 (유원하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2.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보건단체의 홍보활동—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관영 건협사무총장)
3. 지역사회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교육 활동의 중요성(김종배 서울치대교수)
4. 보건교육 활동증진을 위한 보건관계 법규 진단 및 개발(홍재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5. 국민보건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단체의 기능 진단 및 홍보기능 활성화 방안(김수일 연대문리대 교수)

AIDS 예방대책——

“AIDS의 이야기” 홍보책자 제작 健協, 홍보부

健協홍보부는 지난 6월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의 현황과 예방관리대책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건강관리시리즈 20집 “AIDS의 이야기” 홍보책자를 제작 했다.

전국각시도지부와 초·중·고등학교, 윤락업소 등에 무료로 배포될 본책자의 내용은 ■ AIDS란 무엇인가 ■ AIDS의 특성 ■ AIDS의 감염경로 ■ AIDS의 증상과 경과 ■ AIDS의 진단 ■ AIDS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AIDS 예방대책을 알기쉽게 만화를

곁들여 제작했다.

선변검사·후 투약 강조

KBS2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健協은 지난 6월 23일 주부들을 대상으로 방영되는 아침프로인 KBS2TV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 임한종 고려의대 기생충 학교수와 한인수 조사연구부장이 출연 선변검사·후 투약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요즘, 간디스토마의 문제점 특성 구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방송된 이번 프로에서는 정기적인 기생충 검사의 필요성이 재강조 됐다.